

연예뉴스 스테이션

탈세 의혹 백종원 “심층 세무조사 7월에 받았다”
더본코리아의 대표인 요리연구가 백종원 측이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에 즉각 부인했다. 21일 한 매체는 더본코리아와 백종원이 정기 조사가 아닌 심층(특별) 세무 조사를 7월에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백종원 측은 “정기조사로 진행됐다. 검찰 고발을 목적으로 조사하는 4팀에서 진행해 확대된 것 같다”며 “조사 결과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연기자 최진혁, 무릎골연골 손상으로 의병 전역



군 복무 중인 연기자 최진혁(사진)이 무릎골연골 손상으로 16일 의병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소속사 레드브릭하우스 측은 “최진혁이 무릎골연골 손상으로 좌측 무릎에 줄기세포연골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해 더 이상 군 복무가 어렵다는 군 당국의 판단 아래 의병 전역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최진혁은 3월31일 육군 30사단으로 현역 입대했다.

윤종신, 故 신해철 ‘고백’ 리메이크 발표

가수 윤종신이 고 신해철의 ‘고백’을 리메이크해 발표하고, 그 수익금을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윤종신은 21일 자신의 SNS에 “신해철 형의 1주기를 맞아 제가 가장 좋아했던 1집 수록곡 ‘고백’을 리메이크해 27일 ‘월간 윤종신 스페셜’이란 타이틀로 공개한다”며 “수익금 전액은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썼다. 신해철 소속사 측은 25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팬클럽 철기군과 신해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추모식 및 봉안식을 진행한다.

박유천의 세번째 도서관, 전남 팔금도에 개관

연기자 박유천의 이름을 딴 세 번째 도서관이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도에 개관했다. 21일 박유천의 팬 커뮤니티 블레스유천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팬클럽 창단 5주년을 맞아 이곳에 현금 100만원과 책 6950여권(1300만원)을 기증했다. 도서관이지만 공부방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 영화관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박유천 도서관은 같은 지역의 섬마을 장산면에 1호점과 흑산도에 2호점이 건립됐다.

YG엔터 “씨엘·송민호 열애 사실 아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21일 제기된 소속 걸그룹 투애니원 씨엘(이채란·24)과 위너의 송민호(22)의 열애설에 대해 “사실무관”이라고 부인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씨엘과 송민호로 보이는 남자가 호텔 복도로 보이는 건물내부를 함께 걸어가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열애설이 제기됐다. 이에 YG 측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문세 ‘응답하라 1988’ 특별판 내레이션

가수 이문세가 케이블채널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특별판 내레이션을 맡는다. 21일 tvN 측에 따르면 이문세는 11월6일 첫 방송을 앞두고 30일에 특별 편성한 0화에서 드라마를 소개한다. 1980년대 전성기를 이룬 이문세와 해당 시기를 그린 드라마와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해 이문세에게 제의했다. 0화에는 ‘쌍문동 골목 친구 5인방’ 해리, 고경표, 박보검, 류준열, 이동휘 등의 드라마 속 모습과 오디션 영상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AOA, 일본 1집 앨범, 주간 판매량 2만2000장
21일 일본 오리콘에 따르면 AOA 일본 1집 ‘에이스 오브 엔젤스’가 한 주간 판매량 2만2000장을 기록하며 앨범 주간차트 2위에 올랐다. 14일 발매 이후 일간차트 1~3위를 오르내리며 일본 인기 걸그룹 AKB48의 유닛 프렌치키스와 경쟁을 벌여온 AOA는 2000장 차이로 아쉽게 주간차트 1위를 내줬다. AOA는 이번 앨범으로 올해 일본에서 정규앨범을 발매한 한국 여자가수 중 오리콘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차세대 대표 한류 걸그룹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책 랭킹

순위	제목	작가
1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2	라면을 끓이며	김훈
3	마션	앤디 위어
4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사이토 다카시
5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
6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이석원
7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베크만
8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카트린 지타
9	글자전쟁	김진영
10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2	백종원



‘가을은 로맨스의 계절’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서늘한 바람을 타고 극장가에 스릴러 장르의 영화가 넘쳐난다. 손현주 주연 ‘더 폰’(왼쪽사진)과 조정석의 ‘특종:랑첸살인기’.



사진제공 | 미스터로맨스·우주빌름

가을극장가 뜨거운 ‘스릴러 대전’…왜?

뉴스 인사이드

저비용·고효율…위험부담 적어
기록없는 2030 마니아 주요 타깃
‘더폰’ ‘특종’ ‘그놈…’ 등 4편 분출

가을은 이제 오싹한 스릴러의 계절이다. 최근 극장가에 공포를 가미한 스릴러 영화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가을 장르로 인정받아 온 멜로나 로맨스, 휴먼드라마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22일 개봉하는 손현주의 ‘더 폰’과 조정석의 ‘특종:랑첸살인기’를 시작으로 28일 주원의 ‘그놈이다’, 29일 윤소이의 ‘어떤 살인’이 잇따라 관객을 찾는다. 흉악한 범죄를 바탕

에 깔고 공간을 초월한 타임슬립을 주요 장치로 활용하거나 영적인 존재를 내세워 소재의 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그렇다면 ‘가을 스릴러 대전’이 벌어진 배경은 뭘까. 한국영화의 스릴러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액션이나 사극, 시대극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대작과 비교해 적은 예산과 규모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적다는 의미. 화제성에 비해 흥행 성적이 떨어지는 멜로나 로맨스보다 실제로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해왔다. 올해 5월 개봉한 스릴러 ‘악의 연대기’(순제작비 35억원)는 2월 멜로 ‘씨시봉’(65억원)보다 약 두 배 적은 돈을 들이고도, 50만명을 더 모았다.

이처럼 ‘효자 장르’로 인정받는 스릴러이지만 7~8월 여름이나 12월에서 1월로 이어지는

극장가 성수기에 진입하기는 사실상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영화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장 재편’이라는 분석을 꺼낸다.

멀티플렉스 극장체인을 갖춘 한 배급사 관계자는 “스릴러를 선택하는 주요 연령대는 20~30대 젊은층”이라며 “이들은 시즌에 상관없이 원하는 영화를 찾아보는 극장의 적극적인 관객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즉 2030세대가 타깃인 스릴러가 굳이 경쟁이 치열한 극장가 성수기를 노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한편에서는 유난히 대작으로 집중되는 한국영화의 제작 분위기를 엿보게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흥행 10위권 한국영화 가운데 여섯편

이 제작비 100억원 규모. ‘대작’은 곧 ‘흥행’으로 이어진다는 분위기가 확고해지면서 최근 제작을 추진하는 영화들의 규모 역시 대부분 ‘100억+알파’로 책정되고 있다. 한 영화 제작자는 “투자 대비 매출을 고려하면 대작 영화가 관객이 많이 몰리는 극장 성수기를 공략하는 건 당연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처럼 스릴러가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각각의 영화가 제대로 평가를 기회는 그만큼 적어질 수도 있다. ‘더 폰’의 손현주는 “스릴러를 내놓는 입장이지만 다른 영화들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과연 관객이 적절하게 선택할지 부담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뜯기자’ 최시원, 내달 군 입대가 아쉬운 이유

MBC ‘그녀는 예뻤다’서 능청스런 캐릭터 물오른 연기로 아이돌 이미지 불식 성공

최시원이 MBC 수목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를 통해 연기로 ‘재발견’되면서 그의 입대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최시원이 드디어 제 옷을 입었다’는 평가 속에 광고·드라마 등 ‘러브콜’이 몰려들지만, 아쉽게도 그는 종영 직후인 11월 19일 입대할 예정이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드라마 및 광고

관계자들은 “예정대로 입대하는 것이냐?” “혹시 연기할 계획은 없느냐?”는 문의를 넣고 있다.

‘그녀는 예뻤다’에서 최시원은 잡지사 기자 역할을 맡아 열연 중이다. 능청맞은 캐릭터이지만 과장되지 않은 연기로 재미를 주고, 극중 성격마저 호탕하고 마음 따뜻한 인물로 소개되면서 매력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이에 최시원을 ‘아이돌 출신 연기자’로만 알던 관계자들은 그 매력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해준 계기를 얻고 있다.

사실 최시원은 알고 보면 연기자로 먼저 데뷔했다가 슈퍼주니어에 합류했다. 특히

중국에서 여러 편의 영화·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내공을 쌓았고, ‘그녀는 예뻤다’를 통해 국내 팬들에게도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시원은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이번 작품이 끝나면 많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배우구나’란 얘기를 듣고 싶다. 큰 꿈을 갖는 건 좋지 않으나”고 했다.

그 꿈을 이미 상당부분 이룬 것 같은 최시원은 관계자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예정된 날짜에 입대한다. 그러나 입대 직전 연기자로서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겨 제대 이후 그를 찾는 수요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최시원의 재발견이다.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서 ‘뜯기자’라는 애칭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MBC

29일 개봉 앞둔 영화 ‘나쁜 나라’, 극과 극 시선

누구는 기꺼이 돕고, 또 다른 누구는 악의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16일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이 보낸 1년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 나라’(감독 김진열·제작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가 29일 개봉을 앞두고 극명하게 나뉜 시선을 받고 있다. 영화의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문소리, 추모곡 ‘가만히 있으라’를 헌정해 영화 예고편에 삽입한 가수 이승환처럼 도움을 건네는 손길도 있지만 맹목적인 공격 역시 이어진다.

21일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 ‘나쁜 나라’ 페이지에는 1200건 이상의 리뷰가 게재됐다. 대부분 희생자나 유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의 악성 글이다.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의 리뷰가 100여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런 사전 반응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 나라’가 개봉을 앞두고 비난과 도움 등 극명하게 다른 시선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은 ‘리뷰 테러’에 가깝다.

특히 왜곡된 정치 성향을 드러내 자주 논란을 빚어온 한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심

배우 문소리 내레이션·이승환 추모곡 도움 일부 포털사이트 리뷰엔 악의적 악성 댓글

각한 수준이다. 영화 포스터에 고인이 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삽입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아직 관객의 평가가 남은 상황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나쁜 나라’의 극장 상영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로 내고 있다. 제작진은 앞서 극장 개봉을 위해 소셜편담을 진행했다. 당초 목표액은 3000만원. 마감일인 18일까지 1295명이 참여해 총 3672만원을 모았다. 김진열 감독은 “누구나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자각을 나누고자 했다”며 “나와 동떨어져 있다고 여기는 국가가 사실 내가 만들어낸 국가는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역외탈세 논란 아픔 장근석 내년 연기자로 국내 컴백

한류스타 장근석이 내년 연기자로 컴백하며 본격적으로 국내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올해 초 역외탈세 논란으로 1년 동안 국내 활동에 자질을 빚었던 장근석은 2016년부터 드라마와 영화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근석 측 관계자는 21일

“구체적으로 작품까지 결정된 상태”라면서 “내년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와 관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근석이 2016년 공격적인 활동 계획을 세운 것은 아무래도 올해 공백이 아쉬워졌다. 1월부터 탈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 어촌편’에서 하차했고, 촬영을 마친 분량도 통편집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이후 모든 국내 활동을 중단하면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등 아시

아에서 자체 공연인 ‘크리스 쇼’로 해외 팬들과 만나오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해외 공연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4일엔 중국 상하이 국제제조중심에서 ‘2015 라이브 인 상하이’ 팬미팅을 연다. 최근 현지 매체와 팬들은 “올해 중국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팬미팅”이라고 반기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달 말 ‘할로윈데이’를 맞아 한 호텔에서 현지 팬들과 ‘할로윈 파티’를 연다. 장근석은 해마다 이날 팬들과 소규모로 파티를 진행해왔다. 이정연 기자

등산 마니아였던 유해진 ‘삼시세끼’ 이후 낯시홀릭



연기자 유해진(사진)이 산에 이어 이번에는 바다의 매력에 푹 빠졌다. 소문난 등산 마니아인 유해진은 현재 방송 중인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를 촬영하면서 낚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시즌2가 1보다 ‘어부’생활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낚시를 접할 기회가 생겼다. 소속사 관계자는 “유해진이 낚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주변 사람들과도 낚시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유해진은 프로그램 촬영 전까지 낚시 경험이 없었다. 16일 2회분에서 공개됐듯이 낚시 실력은 아직 초보수준이지만 승부욕만큼은 전문가 못지않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등 시즌1 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손맛’을 보면서 낚시의 매력에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또 등산처럼 낚시도 홀로 즐기고, 기다리는 동안 사색할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도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다.

유해진은 북한산 인근 서울 종로 구기동으로 이사했을 정도로 산을 좋아한다. 촬영 스케줄에 따라 오전과 오후 중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에 오르는 ‘1일 1등산’을 실천하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